

강진웰니스푸소센터 ‘체류농촌관광’ 新시대 연다

홍보관·초록민음 판매장 등 조성

푸소 10년 성과 기반 제2의 도약

체험·교육 집약 ‘농촌문화 허브’로

강진군의 농어촌 체류형 웰니스 관광을 선도할 핵심 거점 시설인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가 문을 열었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관한 웰니스푸소센터는 2019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진푸소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웰니스푸소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천174㎡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강진푸소의 발자취와 성과를 소개하는 홍보관과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초록민음 판매장이 자리했다. 2층에는 각종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회의실,



강진군은 지난 18일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강진군 제공〉

조리실, 세미나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이번 개관식과 연계해 진행된 광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68명의 1박2일 푸소체험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았다.

유학생들은 강진의 대표 명소인 백운동원림

과 고려청자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국 전통 문화 유산을 둘러보며 이해를 넓혔고, 강진향교에서는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다도 예절을 배우며 한국 고유의 예법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제 농가에서 머물며 한국 농어촌의 생활 방식과 음식, 공동체 문화를 몸소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외국인 유학생 푸소체험을 통해 이

러한 방식이 한국의 새로운 농어촌 관광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웰니스푸소센터 개관을 계기로 푸소 운영 농가 교육 확대, 체험 프로그램 전문화,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제2의 강진푸소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푸소센터는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농어촌관광’을 구현하는 실질적 지원 플랫폼으로서 강진푸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진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웰니스푸소센터는 농가와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체류형 농촌 웰빙 관광의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푸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진푸소와 강진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시 14억 들인 주차타워 주먹구구 운영 ‘도마위’

위탁계약서 無 ‘구두 계약’ 운영 논란

화재보험 미가입·기록물 관리 위반도

고경욱 의원 “혈세 낭비…책임 규명”

목포시가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주차타워의 부실한 운영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고경욱 의원(연산·월산·용해동)은 최근 열린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양시장 주차타워의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해당 주차타워는 목포시가 지난 2021년 1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 14억4천700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하지만 시설 운영 과정에서 민간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만으로 운영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관청

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무시하고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업무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주차타워 관리 주체는 건립 초기 농업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를 거쳐 현재 교통과로 변경됐으나, 부서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비롯해 20여건에 달하는 시설 보완 요구사항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실도 드러나면서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위탁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승강기 휴지(정지) 신청을 했고, 시가 이를 승인해줬다”며 “이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승강기안전법과 공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영구보존 대상인 승강기 휴지 관련 서류의 생산·등록·폐

기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록물 관리 규정마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중양시장 주차타워는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강기 휴지 신청 사유가 ‘중대 결함’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 관리자의 운영비 부담 때문에 고장이 없는 승강기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하위 공문서 작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고 의원은 “혈세 주차타워는 민간위탁관리법, 공유재산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시설을 방치하고 법을 어긴 경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시 감사실 차원의 자체 검토와 함께 시의회 의뢰에 따른 감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잦은 비 여파 뱃짚 수급난 해소 선제 대응

종자·건초·배합사료비 등 3단계 지원

영광군이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뱃짚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 지원에 나선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9~10월 지역 강수량은 최근 3년 중 최고치인 337.8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뱃짚 수확 작업이 지연되고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군은 ‘조사료 수급 선제적 안정화대책’을 수립하고 긴급대응에 돌입한다.

이번 대책은 ▲조사료 종자 추가 지원 ▲건초 공급 확대 ▲한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군은 파종 시기를 놓친 농지에 종자를 긴급 공급하고 밭이가 저조한 곳에는 보충 파종을 지원해 내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감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부족한 뱃짚을 대체할 건조 공급도 대폭 늘린다. 축협 협력사업인 건조 지원 규모를 기존 3천700두분에서 8천두분으로 대

폭 확대하고,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다음 해 초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 농가를 위해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농가별 사료 구입 실적을 산정해 지급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상 이변에 따른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사료 자급 기반을 지키고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읍 기산봉 힐링숲길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기산봉’ 일대 체류형 관광지 조성

郡 대표 명승지 힐링 숲길 새단장

함평의 대표 명승지인 ‘기산봉’이 사계절 힐링 숲길로 다시 태어난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기산봉 일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 군민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를 선보이기 위한 ‘힐링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함평읍을 감싸고 있는 기산(箕山)은 조선시대 관료 이안(李岸)이 귀향해 “마음이 티끌 없이 살겠다”는 뜻을 담아 중국 고사 ‘기산지절

(箕山之節)’과 ‘기산지지(箕山之志)’에서 이름을 따왔다. 예로부터 함평천과 어우러져 ‘기산영수(箕山映水)’로 불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사랑받아 왔다.

군은 이곳에 숲길을 정비하고 보행 데크와 전망 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숲길 주변에는 ▲봄 수선화 ▲여름 금계국 ▲가을 취나물·화살나무 단풍 ▲겨울 송악 등 계절별 식생을 보강해 방문객들이 사계절 내내 색다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함평=김연수 기자

무안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공개

체납액 19억원…기존 53명·신규 4명

무안군은 2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7명의 명단을 전남도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기존공개자 53명, 신규공개자 4명이 해당된다. 총 체납액 규모는 19억원이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주요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재산세(토지) 등 2억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B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7천200만원을 미납했다.

군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경매 등의 체납처분을 비롯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접수

내달 12일까지…파쇄지원단 방문

영암군이 불법 소각을 줄이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고추대·콩대·참깨대·과수 전정 가지 등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파쇄지원단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료로 파쇄·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재활용돼 순환농법 실천과 탄소중립 농업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는 88ha 규모로 사업이 이뤄지며 산림 인

접 지역 농업인과 70세 이상 고령농, 여성농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를 확인한 뒤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읍·면 접수자를 바탕으로 오는 12월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10일부터 파쇄 일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노끈 등 이물질이 섞여거나 작업 환경이 불량한 경우 파쇄가 제한될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삼호·덕진·시종·금정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목재파쇄기 2대를 무료로 임대해 자체 처리할 수 있으며, 무상 임대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영암군 관계자는 “취약농가 중심으로 효율적인 순회 파쇄 지원을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군 ‘오피스 마을 만들기’ 4년 연속 선정 쾌거

완도군은 20일 “전남도가 주관한 ‘청정 전남 오피스 마을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정 전남 오피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직접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높이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군외면 중리를 비롯해 신지면 양지, 고금면 봉암, 청산면 청계·도청2리 등 5개 마을이 우수 마을로 뽑혔다.

중리마을은 마을 산책로에 태양광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했고, 양지마

을은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집적소를 조성했다. 봉암마을은 봉황산 등산로를 정비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청계마을은 장례식장 외벽에 도자기 벽화를 그려 포토존으로 재탄생했으며, 도청2리 마을은 역사 골목 장미 낭로 조성, 오피스 마을 사진전 등 주민 주도의 경관 개선 활동과 관광 자원 연계로 호평을 받았다. 〈사진〉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공동체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